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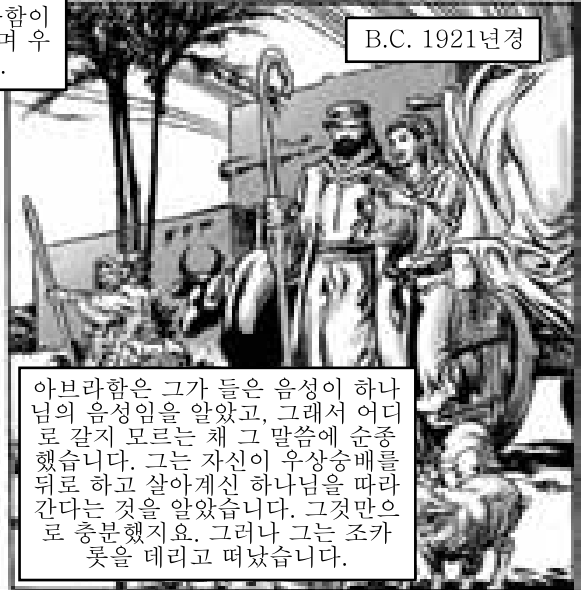
사람이 만든 형상이 참된 신이라고 믿지 않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며 우상을 통해 예배할 수 없는 분임을 그는 알았지요.

B.C. 1921년경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아, 이 우상의 도시를 떠나 너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임을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죄와 사망을 멸할 약속의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은 그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았고,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상숭배를 뒤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그러나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행 끝에 가나안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함의 아들이 정착한 곳으로,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 불리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 땅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가 보아라.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번성할 것이다

사라,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당신에게 자손이 생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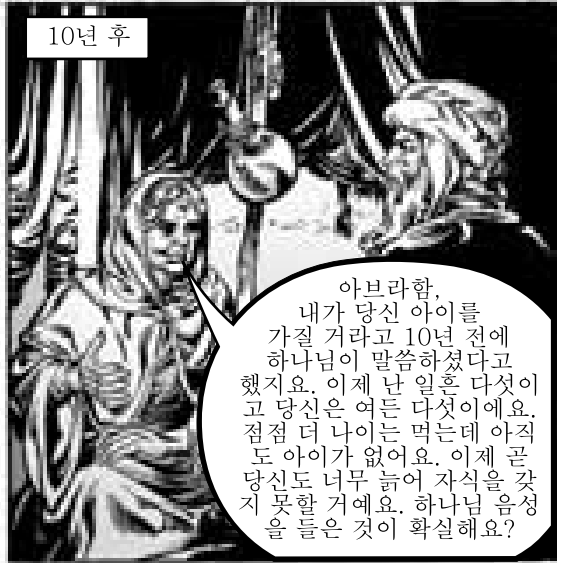
당신도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가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럴거라고 말씀하셨소.



아브라함은 그 땅을 다니면서 때때로 멈춰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처럼 그는 자신이 죽어마땅한 죄인임을 알고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지요.

어린양의 제사가 그의 죄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10년 후

아브라함, 내가 당신 아이를 가질 거라고 1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이제 난 일흔 다섯이고 당신은 여든 다섯이에요. 점점 더 나이는 먹는데 아직도 아이가 없어요. 이제 곧 당신도 너무 늙어 자식을 갖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이 확실해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음은 확실히 아는데, 다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는지는 잘 모르겠구려. 하나님은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게 있는 것이라곤 늙은 몸과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내, 그리고 많은 양떼 뿐이군.



두려워 말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보호자요 너의 큰 상급 이니라.

아이가 없는데 어떤 보상을 주실 건가요?

너와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아브라함아, 이리 와서 저 하늘의 별들을 세어 보아라.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여 무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으니 너의 믿음을 마치 의인 것처럼 여기마. 분명히 알라. 네 자손이 타지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한 후,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벌하겠고 네 자손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은 이곳에 돌아와 이 땅에 거할 것이다.



아이를 주시겠다던 약속이 어디 있나요? 나는 하루 하루 늙어간다구요. 당신도 곧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 난 평생 당신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게 될 거예요.



이 땅의 관습에 따르면 제 여종이 저 대신 아이를 낳아도 돼요.



아브라함, 이번이 아이를 가질 마지막 기회인지 모르겠나요? 너무 늦기전에 제 여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으세요. 그애는 당신의 아들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그러면 또 대체당신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건가요?



이 길 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내의 말을 들었지요.



몇 달 후

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거예요.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음을 알고는 자만하여 사라를 깔보았습니다. 사라는 질투로 힘들어졌지요.



사라는 하갈에게 힘든 일을 시키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가지거나 첩을 취하여 자식 얻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물을 다 길고 나면, 장작을 패도록 해!

하갈은 도망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갈은 사라를 떠나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피곤하여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어지자 그녀는 지쳐 쓰러졌지요.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아, 사라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뜻이다.

그에게서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이스마엘은 거친 사람이 되어 언제나 모든 사람을 대적하겠고 모두가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모든 형제와 가까이 살 것이다.



하갈은 집으로 돌아왔고, 때가 되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모든 아랍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얼마되지 않아, 아브라함은 너무 늙어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이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말대로 온전히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너의 후손을 번성케 하겠고, 너로 많은 민족의 아버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네 후손과도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할 것이다. 내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할 것이며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둘 다 아이를 가지기엔 너무 늙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실까요?

히히,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벌써 99세이며 사라도 89세입니다. 제 몸은 죽은 바나 다를 없지요. 저희는 아이를 못 가집니다. 그러니 제발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너와 사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축복의 약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이어질 것이야. 일년 후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할까?.....그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늙어 죽은 바 된 이 두 몸을 고쳐 아이를 갖게 하실 수 있고말고. 맞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아브라함은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무언가 다르다는 점을 알았지만 그 손님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이 사막에서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여행한 것 같지도 않아 보였고 그 지역에 사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건장하고 당당했으며 나이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 중 둘은 의로운 천사였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려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가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의 아내 사라
가 아들을 낳을
것ियो.

ㅋㅋ~

나도 늙었고,
아브라함은 더
늙었는데, 내가 이제
더 즐거움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라
는데 사라가 왜
웃느냐?

안 웃었았
어요...

내가 웃었다.
네가 믿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네가 임신할 때가 되면 내가 다
시 올 것이며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이다.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좋겠는가?
그는 못 자손의 아버가
될 것이요, 자기 아들
과 후손들을 가르쳐 내
게 순종하게
할텐데.

네, 그도
알아야 합
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중해졌다. 그래서 내가
그 두 도시의 모든 사람들, 곧 남
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를
멸할 것이다.

하지만 제 조카
롯과 그 가족이
그곳에 살고 있
는데요!



내가 만일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하나님 같지 않습니다. 만일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주께서 의인을 구하기 위해 성 전체를 살리시겠습니까? 온 인류의 심판자가 옳게 행하실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티끌만도 못해 감히 하나님께 말씀드릴 자격이 없지만, 의인이 45명만 있다면 5명이 부족하여 도시 전체를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4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2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으면 이 악한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쭙보겠습니다. 만일 의인이 10명만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만약 10명을 못 찾으시면, 제 조카 롯에게 알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밤 그를 찾아가겠다.



그날 저녁, 두 천사는 도시에 들어가 롯이 사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기막히게 타락했군. 생 각보다 훨씬 심한데.

하나님이 왜 아이들과 동물까지 모두 멸하려 하시는지 이제야 알겠어.



여보시오, 거기, 밤에 길에 있으면 안돼요. 오늘 밤은 저희 집에 들어오십시오.

재네들, 그런데로 잘 생겼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가서 말해줘야겠군.



룻! 그 사람들 내보내!
내! 같이 자게!

가버려!
그렇게 악한 짓은 하면 안 돼!

이방인 주제에, 들문을 무수고 틀어가서 너한테는 더해주마!

자기가 뭐라고 저리 고상하고 힘센 척 하지? 더러운 위선자.

내 딸들은 싫어.
넌 내보내라 구!

가증스런 자식!



하나님이 너희 눈을 멀게 하시리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된 거지?

누가 불 쪼어?

어디로 간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위력이지?



내일 아침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 경고할 사람들에게 경고해라. 의로우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도시의 죄를 참지 않으실 거다.

내일 하나님이 이 곳에 하늘에서부터 불 비를 내리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어서! 불 비가 곧 내릴거다. 아무도 피하지 못할거야.

도시가 불탈 때 절대 뒤 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사라는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었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던는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욕구가 다시 솟아오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왜 그래요? 나를 ... 그렇게 쳐다보는 건 정말 오랜 만이에요.



기적이었어요! 세 달이 지나자 사라는 임신했음을 모두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아이의 이름을 이삭(웃음이라는 뜻)이라고 지읍시다. 이 아이는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요.

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가질 거라고 하셨을 때 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다 늙어서 내가 낳은 내 아이를 키우게 될 거라고 누가 믿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항상 그러시지요.



하갈에게서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제 14살이었습니. 그는 새 아기를 싫어했어요.

저 조그만 녀석이 나를 비웃다니. 저 애들을 내 아이들과 한 집에 두지 않을 거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요. 저들은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말이 옳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거라.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돌볼 테니까. 그리고 이스마엘이 너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서도 큰 민족이 나게 하겠다. 하지만 사탄을 꾀멸할 약속된 구세주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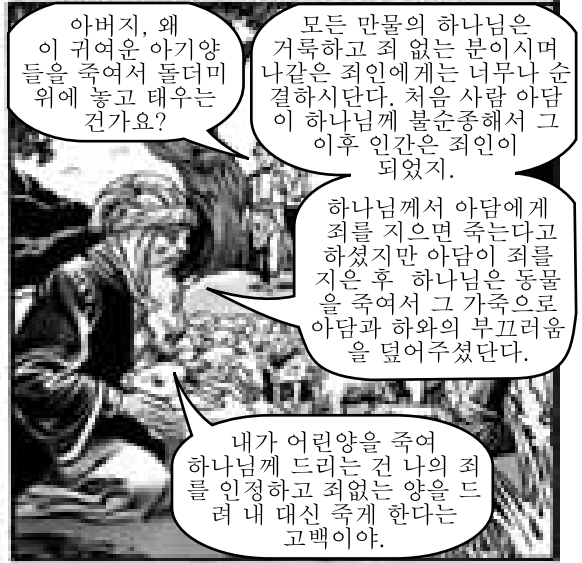


이스마엘은 자라서 모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이삭은 자라 유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은 이복형제인 셈이지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정말 사랑했
다. 그들
어질 수 없
는 사랑이
이 되었고.

너는 기적의 아이란다.
네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낼 거냐?



아버지, 왜
이 귀여운 아기양
들을 죽여서 돌더미
위에 놓고 태우는
건가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 없는 분이시며
나같은 죄인에게는 너무나
순결하시다. 처음 사람 아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이후 인간은 죄인이
되었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은 동물
을 죽여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
을 덮어주셨다.

내가 어린양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건 나의 죄
를 인정하고 죄없는 양을 드
려 내 대신 죽게 한다는
고백이야.

이삭은 튼튼하게 자라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을 깊이 사랑했고 그들은 종종 하나님께 예배드리
고 제사드리러 함께 다녔습니다. 어린양을 죽여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 제사를 드렸지요.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외아
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바치거라.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교도들이나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
아들 이삭에게서 큰
민족이 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
습니다. 제가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
나님이십니다. 이
해할 수 없지만 당
신께 순종하지요.



삼일 길이니 일 둘 주일 쫓 후에 아오겠소.

조심하세요.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할게요.



삼일 후.

아버지 저기 산이 있어요. 해가 저기 전에 도착하겠네요.

그렇구나. 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자.



아버지 장작도 가지고 왔고 제단도 쌓았는데, 희생 제물은 어디 있죠?

이삭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네 어머니와 내가 이렇게 늙어 아이를 낳게 하셨다고 말한 것 기억하지? 그 하나님이 내게 또 말씀하시더구나.



이번에는 너를 제사로 바치라고 하셨다.

저를요? 아버지, 확실한가요?



제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큰 민족의 조상이 되어 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죽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버지, 어찌되었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일을 이행하실 수 있다는 걸 내가 배웠다. 하나님이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죽더라도 그렇게 될 거다.

모르겠다. 너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면 몰라도.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줄은 알았지만, 번제를 드리는 일만 다를 뿐, 따르면서 그의 마음은 떨고 그 손은 떨렸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손발을 묶고 제 단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목에 칼을 찌르는 거였지요.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내려 찌르려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목소리 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외아들을 바치기까지 내게 순종하려 했으니 내가 나를 신뢰함을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숫양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좀 보세요! 저 숫양을 대신하라고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독자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하여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하겠고 네 자손이 이 땅을 취하며 네 대적을 멸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날 네 자손 중 하나를 통해 이 땅은 민족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군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수행할 선택된 아들이었지요. 이삭은 아들 야곱을 낳았고, 나중에 그 이름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때가 되어 가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그들은 결국 노예가 됩니다.(B.C. 1875년경)



야곱의 열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열 두 왕자를 낳아 그들이 아랍 민족이 되었구요.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들 열 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

아브라함

이삭 B.C. 1896년경

야곱 B.C. 1836년경